

## 교육인적자원부 현안보고

반갑습니다. 인사소개를 받으면서 보니까 직접 간접으로 아주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바람이 매우 센 곳인 것 같죠? 이번 인사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마음고생 시켜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교육주체들 간 이해관계와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심각하다

옛날에 대통령 후보 하던 시절에 교육부를 없애야 교육이 잘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그런 점도 있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유심히 교육행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내가 얻은 결론은 그런 얘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나도 교육부 해체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 수장을 교육주체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주체는 주로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사람, 학부모, 배우는 학생, 지역사회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지만, 아마 주로 교원집단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교육주체 사람들과 더불어 공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육부 책임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시도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갈등이 심각하고 그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교육주체들 간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육정책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이 무겁고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했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해하게 됐고, 여러분들에 대해 기대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국회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먼발치서나마 보고 보고서를 통해 본 사람들이라 신뢰를 가졌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참 잘해 왔습니다. 지금도 교육부 해체되면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중심 잡고 이만큼 끌고 왔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많은 비판이 있는 가운데 크게 대과 없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 그런대로 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일관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1994년경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98년 국민의 정부로 넘겨받았던 교육개혁백서에 담겨 있는 교육정책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98년 내가 교육위원을 할 때만 해도 초중등교육이 인성교육과 창의력 교육, 열린교육 때문에 교육부에 많이 논란이 있었고, 과연 정착될까 의문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일관된 정책 덕분에 초중등학교에서 창조적 교육, 건강한 시민교육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 대학 서열화 해소 전 입시경쟁 해소는 어렵다

그리고 교육이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가 학벌위주, 연고 중심의 사회이고, 서열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단히 많은 분야에서 학벌로 서열화 되어 있어서 대학입시가 사생결단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분야별로 특성화되고 다양한 서열구조 아니라 획일적 서열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학입시가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 서열화 해소 전에는 입시경쟁 해소가 어렵고, 입시제도가 다양화되어서 분야별로 경쟁되기 전에는 고교 입시경쟁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2008년 대학입시 방법에 관해서는 지금보다 진보된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정 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분명 진일보했습니다. 200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으로 또 진일보해서 정착되고 대학들이 적극 협력해서 간다면 2010년 이후 고교 교육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입제도가 합리화되어야 고교의 지나친 입시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며,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경쟁은 수용하되 감당할 만한 바람직한 경쟁이 돼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부가 시행착오도 많았고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교육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칭찬을 못했지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믿음 가지고 치하합니다. 이대로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교육정책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 교육혁신위원회, 정책실과 대통령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대통령이 관장하지만 교육정책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은 한번 정해 놓으면 정해진 대로 가는데 교육정책은 바람이 세서 결정해 놔도 자꾸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흔들릴 우려가 있어 대통령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장관, 그 이전 장관이 여러 번 바뀌어서 마음 고생이 많고 심리적으로 위축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뒷받침

하겠습니다. 장관이 곧바로 취임하겠습시다만, 공백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현안과정 중에서 대통령이 온 김에 이런 저런 건의 준비했거나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대통령 질책도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